

I. 시작하는 말

어느덧 절기 시리즈의 마지막인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일곱째달 열닷새날, 즉 7월 15일부터 7일동안 지키게 됩니다. 첫 날은 성회로 모이고, 7일 동안 초막에 머물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며, 여덟째 날에는 다시 성회로 모여서 화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초막절의 핵심은 일주일간 자신의 집을 두고, 초막에 나와 사는 것이 핵심입니다.

II. 중심 말씀

1. 우리는 은혜받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43절의 말씀에 나와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을 통해 출애굽의 시간을 대대로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덧 광야를 살고 있고, 조금 더 지나면 안정적인 가나안 땅에 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이 변화되더라도, 지금의 일상은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셔서 가능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조금 상황이 바뀌고 나면 금새 이 은혜가 어디서 왔는지 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눔 질문) _____

2.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우리에게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떠나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중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어느 집에 살던지, 새로운 집으로 가야했습니다. 하나님께선 우리는 언젠가 여기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영원히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유일하게 가져가는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과 함께 손잡고 다시 만나는 그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눔 질문) _____

3. 영원한 우리의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우리가 다시 살던 집을 그리워하게 합니다. 초막에서의 일주일만 상당히 불편한 시간입니다. 자는 것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모두 불편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갈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갈망을 통해, 우리의 존재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영원히 아픔과 슬픔이 없는 곳,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약속해주셨던 그 거처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나눔 질문) _____

III. 정리하는 말

초막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주셨던,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주셨던 순간을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언젠가는 내가 살던 곳을 떠나야 할 때가 옴을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잠시 사는 초막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될 본향의 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늘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1. 환영의 시간(Welcome) : 행복한 기억 나누기

◆ 임재찬양

- 1)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 2)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 마음문 열기 : 한 주간 감사 나누기, 게임

2. 경배의 시간(Worship) : 복음성가나 찬송가로 경배하기

◆ 찬송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492)

- 1)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 2)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길 다간 후에 주의 품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 3)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을 깊어 곤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 4)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뵈올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후렴)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 쏟아놓는 기도 : 나의 죄, 나의 아픔, 나의 두려움, 나의 걱정

◆ 주 안에 있는 나에게

- 1)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탄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 2)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 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 3) 내 주는 자비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 4)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 말씀 나눔의 시간(Word) : 구체적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

◆ 말씀 나눔 및 결단의 기도

◆ 기도제목 나눔 및 합심 기도

4. 사역의 시간(Works) : 역사하시는 주님께 기도하기

◆ 교회를 위한 기도 - 담임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

◆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 한반도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위정자를 위하여

◆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 해외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